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주식회사 네패스

### 지역과 사람을 잇는 '선한 영향력'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10년 이상 협력하며 연간 86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온 현장 중심 사회공헌으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네패스가 그 주인공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 주거환경 개선과 멘토링, 정기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의 필요에 응답해왔다.

앞으로도 임직원과 지역사회 협력 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이어갈 반도체 패키징 및 전자재료 기업인 네패스(대표이사 이병구·이창우) EM사업부 경영지원 홍석주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패스는 1990년 설립 이후 '땅끝까지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섬긴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람, 사회를 아우르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왔다. 특히 음성·청주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현장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864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또한 ESG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패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사회공헌'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가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임직원들이 전기공사와 집수리 등 재능기부에 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하며 아동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 독거노인 반찬 나눔, 지역 환경 정화, 헌혈 등 정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형 기부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복지기관의 장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음성군에 위치한 네패스 EM사업부 전경.

#### 10년 동행, 연간 864시간 봉사로 완성된 현장형 사회공헌 일회성 아닌 지역사회와 신뢰 쌓아온 지속가능 파트너십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사회공헌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1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금전 기부를 넘어 재능기부와 멘토링,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 참여형 기부 운영을 통해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네패스는 취약계층에게 연탄 3000장을 후원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대외적으로는 KBS 사장상(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과 음성군수 감사패 수여 등 공식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력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사와 신뢰를 얻으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대내적으로는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긍심과 유대감을 느끼며 조직문화가 한층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장애가정 아동 멘토링 활동은 임직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ESG 경영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가정 아동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는 따뜻한 식사와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난관은 없었는지?

활동 초기에는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와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부서·팀별 참여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기부 중심에서 재능기부와 멘토링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참여율이 점차 높아져 활동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기관과의 장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함께 기획·실행하며 신뢰를 쌓아갔고, 초기의 어려움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지향해 온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끼고 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을 이어온 임직원들과 함께해 준 지역 복지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확장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12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직원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 비영리단체를 확대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명 나눔과 생활 밀착형 지원 등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네패스 그룹 전체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충북도는 13일 200여 명의 보건·복지인과 '2026년 충청북도 보건·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충북도, '2026년 보건·복지인 신년인사회' 개최

보건·복지인 소통의 장... 200여 명 한자리에

충북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청북도 보건·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보건·복지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충북이 나아가야 할 보건·복지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충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혜능원드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보건·복지 기관·단체장 및 종사자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희망메시지' 영상 상영, 신년

인사, 보건·복지인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졌다.

기관·단체 대표로 신년 인사를 전한 유공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충북 보건·복지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 같은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에 답하며 "따뜻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도내 보건·복지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병연도 새해에도 '일하는 밥'과, '의료비후불제'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겠다"고 밝혔다.

### 충북 사랑의 온도탑 15년 연속 100도 달성

충북모금회, 기부 한파 속 108억 8500만원 모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총 모금액 108억 8500만원을 기록하며 사랑의 온도 104.7도를 달성, 62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충북모금회는 2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서동경 보건복지국장과 이민성 충북모금회장을 비롯해 모금분과 실행위원, 충북모금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해 들어 기부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때 '기부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인과 기업, 법인 등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기부가 이어지며 목표를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28억 8000만원을 기부하며 가장 큰 금액을 보냈다.

이어 LG생활건강(4억 8500만원), 이오니스(3억 4500만원) 등도 나눔에 동



충북모금회는 2일 청주 상당공원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다.

참했다.

또아빠다 장터를 통해 성금을 모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행정복지센터에 매년 봉투를 전하며 익명을 고수하는 기부자까지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목표 모금액 104억원에 초과한 108억 8500만원을 달성했다.

충북모금회는 조성된 성금을 긴급지원과 난방비, 연탄, 쌀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분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쉽고 간편하게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1 발송횟수: 주 3회

02 발송내용

- 도내 사회복지 행사(주 1회)
- 유관기관 공모사업(주 2회)

03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청주시, 장년층 고독사 고위험군 345명 발굴

### 5189명 조사 결과 6.6%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청주시는 장년층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사 고위험군 345명을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 내 50~64세 1인 가구(수급자·차상위계층) 518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인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해 방문 조사와 유선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의 약 6.6%인 345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성별로는 남성 224명(64.9%), 여성 121명(35.1%)으로 남성이 약 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50~54세 57명, 55~59세 93명, 60~64세 195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위험군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위험군 345명 전원에게 최소 1개 이상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촘촘한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2주 단위로 생필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지역 농산물 꾸러미 전달로 접촉을 이어가는 '촌데레 밥상 지원',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살피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등을 활용해 생활 여건과 선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Zero! 장년층 1인 가구 빨래해드림' 사업을 도입한다.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의 생활을 보다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기반 관리도 병행한다.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은 지

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12월 기준 1327명이 설치해 이용 중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건강·일자리를 등 장년층 대상 지원 정보를 조사해 통합 제공하는 '1인 장년층 지원서비스'를 다모아를 청주시청 누리집에 게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7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건강한 한 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32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복지사업과 연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진천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접수

### 3월 11일까지... 월 최대 65만원 지원

진천군은 오는 3월 11일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이다.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박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박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며, 다른 제도에 의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내용에 따라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최대 65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교육청소년과(☎ 043-539-7754)로 문의하면 된다.

# 충주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건강관리·생활지원 유지

충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건강관리·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미래병원, 이강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

주한방병원 등 관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및 의뢰를 담당하고, 충주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보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 치료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해지며, 대상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유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병원 퇴원이 질환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충주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 단양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정책 시행

### 1만 870명 대상자 중 3874명 카드 발급

단양군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사업'과 관련해 시행 초기부터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전체 대상자 1만 870명 가운데 3874명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발급률 35.6%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진행된 사전 발급 단계에서 이미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관내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병원 방문과 장보기, 여가 활동 등 일상 이동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청절차는 간단하게, 이용은 즉시 가능하게' 제도를 설계했으며, 이러한 점이 시행 초기 참여 확

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복지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어르신의 외출 빈도 증가와 사회 참여 확대, 나아가 지역 상권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생활·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읍·면별 현장 안내와 추가 홍보를 통해 교통복지카드 발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 제천시,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 위해 76억 투입

### 점심 제공, 운영비 및 신축·개보수까지 종합 지원



김창규 제천시장이 경로당을 찾아 이용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내 경로당 343 곳을 대상으로 점심 제공과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 개·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13억 9000만원, 운영비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은 읍면 등을 통해 2월 중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경로당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3개 경로당 신축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개로 확대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신축이 불가피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 경로당은 규모, 이용 인원, 건축 연도, 노후 상태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증축 및 대수선 지원 대상 경로당을 결정한다. 점심 급식 환경 개선이 필요한 178개 경로당에는 개보수비 300만원과 물품 지원비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경로당은 시의 점심 제공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 개선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성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선정

### 4년 연속 국비 지원... 올해 꽃동네학교 연계

음성군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 공모사업이다.

군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계속지원 사업을 수행

해왔다.

올해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특수학교인 꽃동네학교와 연계해 성인 재직 장애인의 직무 및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장애인 스킬UP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두의 토요일, 꽃동네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주말에도 학습과 돌봄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강도 병행할 계획이 다.


총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이 중 50%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장장자 군 평생학습과장은 "꽃동네가 위치한 음성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꽃동네 및 꽃동네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음성군형 장애인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시설 등록 지원, 장애인복지관·수어통역센터 등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 043-234-0840~2



# 옥천군, 4년 만에 인구 5만명 회복

## 농어촌기초소득 시범사업 등 정책 성과

옥천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흐름을 극복하고 인구 5만명을 회복하며 지역 활력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인구 5만명대에 재진입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추진해 온 각종 인구 정책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 인구 5만 달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군 직원과 군민, 기관·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구 5만명 회

복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5만 넘어, 6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옥천군은 출생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높은 고령화율 등 구조적인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전입·정착 지원 정책을 비롯해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돌봄 정책 강화 등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며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옥천군은 4년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하며 관계자들과 '인구 5만명 달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2025년 12월 농어촌기초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정주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인구 감소 흐름에 전환점을 맞았고, 이를 계기로 점진적인 인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인구 5만 달성 선포식은 옥천군이 도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라며 "5만명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6만명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옥천군,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120일 동안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옥천군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20일 동안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5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

### 신청기간 및 방법

26.1.1. ~ 12.31.(예산 소진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QR코드).

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소

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옥천군보건소(☎ 043-730-2142)로 문의하면 된다.

# 증평군, '1인 가구 통계 보고서' 발표

## 6876가구 중 60대가 1352가구로 가장 많아

증평군은 11일 지역 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증평군 1인가구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1인 가구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군은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주거·경제·복지·연금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성별, 연령별, 읍·면별 현황을 분석한 기초 통계다. 3년 주기로 작성되며, 2022년 첫 조사 이후 올해 두 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2024년 11월 1일 기준 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4개 부문 40개 지표로 구성돼 지역 내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다각도로 담아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증평군 전체 1만 7138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687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352가구(약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은퇴 이후 배우자 사별이나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1인 가구 중 984가구(14.3%)가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대가 266가구(27%)로 가장 많아 중장년층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서는 2024년 기준 1인 8982세대 중

12.5%인 1125세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로 파악됐다. 특히 1인 수급세대 가운데 80세 이상이 300세대(26.6%)를 차지해 초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두드러졌다.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고독사 예방, 건강 관리, 정서 지원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통계를 통해 우리 군의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거 안정, 복지, 문화 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층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서는 2024년 기준 1인 8982세대 중

# 괴산군, 2026년 초 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추진

##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위해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괴산군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다.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자녀 가구에 연간 100만원, 5자녀 이상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을 준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노경희 미래전략과장은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 임산부·중증장애인 월 5만원

영동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비활체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중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비활체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택시비 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바우처는 레인보우영동페이를 통해 제공된다.

특히 비활체이 중증장애인의 경

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용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 택시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산후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다. 임신 중인

여성도 임신확인서(분만 예정일 기재),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비활체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는 지역 내 택시에 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13)로 하면 된다.

# 보은군, 청소년자유공간 '나래' 개소

## 특기·적성부터 자기주도 활동

보은군은 9일 보은읍 이평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보은군청소년자유공간 '나래'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해 윤대성 보은군의 회 의장과 군의원,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청소년답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보은군청소년자유공간 '나래'는 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과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기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3층을 리모델링해 미술실, 음악합주실, 개인연습실, 댄스연습실, 프로그



보은군은 9일 보은군청소년자유공간 '나래'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젝트실 등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공간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래숲' 공간을 마련했으며, 예술·문화 활동과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공간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공간은 청소년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향후 동아리 활동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

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능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습 공간 제공과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청이품송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청소년자유공간 '나래'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대리 (T.043-234-0840~2)

# '그냥드림' 2개월, 3만 6081명에 온기 전달

### 복잡한 증빙 없애 복지 문턱 낮아져 5월까지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 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은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209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 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류 장벽에 막혀 있던 이들이 밥 한 끼를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민간 기업들도 이 따뜻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 물품이 개별 포장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소가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 목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

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통합 신청

### 3월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2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3월 17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장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1:1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2026년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원 구간 1~3구간은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데이터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27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25일부터 발급 시작

### 수도권 거주 청년 15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 20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체도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국내에 거주 청년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직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7개 예매처 모두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올해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

까지며,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에 추가 발급하여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을 할인한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취약계층 270만명 '문화누리카드 15만원' 지급

###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 대상자는 16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 15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원을 추가한 총 16만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다. 올해는 총 3745억원을 투입해 총 270만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응

답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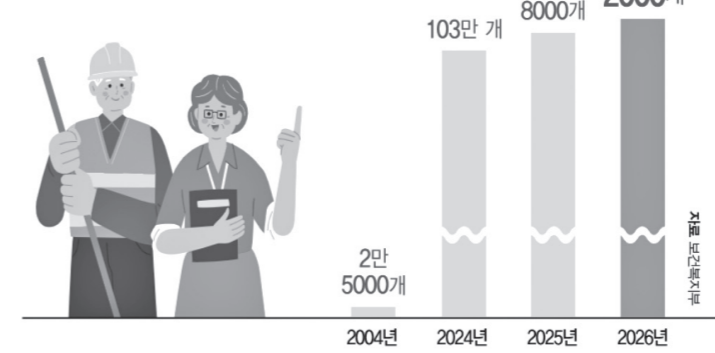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000개 제공

### 통합돌봄안심귀가 도우미, 그냥드림 관리자 신설

노인일자리 수 현황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수를 지난해보다 5만 4000개 늘린 115만 2000개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노인역량활용형이 가장 큰 폭(67%)으로 늘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적

으로 확대했다.

지난 12월부터 전국 65세 이상(일부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97만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까지 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적

1만 7000개 늘어난 70만 9000개, 공동체사업단은 1000개 늘어난 6만 5000개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과 신노년세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형 19만 7000개는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은 돌봄·안전·환경 분야에 중점 배치된다. 올해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재택서비스에 배치되는 통합돌봄 도우미(1602명), 푸드뱅크의 그냥드림 관리자(680명), 안심귀가 도우미(951명)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중 취업·창업형일자리 24만 6000개는 연중 선발을 계속하며, 방문신청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가까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온라인 신청(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개 설치 완료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방문진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주거, 영양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건강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3년 28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를 거쳐 이번 공모를 통해 총 422개소까지 늘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도 허용했다. 그 결과 23개 병원이 신규 선정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도 양질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도협의회는 12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새해맞이 미(米)소지기'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 충북도협의회, 취약층 건강한 식생활 지원

### '미(米)소지기 지원 사업'... 백미 1095포대 전달 NH농협 충북본부·충북모금회 3500만원 마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도협의회)는 12일 새해를 맞아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새해맞이 미(米)소지기'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기초 속에서 주식인 쌀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쌀 배분과정을 통해 기초푸드뱅크 이용자 실태를 재점검하고 지역 사회 안

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추천한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자 등 취약 저소득계층 1095명이다. 충북도협의회는 NH농협 충북본부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통해 총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백미(10kg) 1095포대를 마련했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에서 배분된 백미는 충청북도 내 각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된다. 유응모 회장은 "2026년에도 이어지는 고물가로 쌀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며 "이번 미소지기 사업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덜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주필한방병원 "사회복지사들 응원합니다"

### 복지재단에 1천만원 제품 후원

청주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은 12일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을 통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형)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수동)에 수면건강개선제품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청주필한방병원 염선규 병원장, 청주복지재단 최은희 상임이사,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수형 회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박재수 사무처장이 참석해 지역 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지원은 복지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청주시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달된 수면건강개선제품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청주시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청주필한방병원은 청주복지재단을 통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수면건강개선제품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염선규 병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은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필한방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나눔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의료봉사, 진료 지원,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충북도협의회, 임직원 건강증진·복지향상 '온 힘'

### 청주 뿌리병원과 업무협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도협의회)는 뿌리병원(병원장 이신노, 대표원장 차영찬·이현철)과 지난달 27일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임직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도협의회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협력과 진료 및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제공 등이다.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뿌리병원은 2회 연속 보건복지부 인



충북도협의회와 뿌리병원은 임직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을 받은 관절 전문병원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대표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응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뿌리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충북도협의회 임직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9일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성장 돕는다

### 일자리 사업 50명 발대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규)은 9일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50명의 참여자와 함께 본격적인 일자리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참

여자들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자 대표 선서문 낭독을 통해 성실하고 안전한 근무 수행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 전반 안내와 함께 직무 및 안전교육도 진행됐다.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환경정리, 버스 승하차 보조 및 청결관리, 급식지원, 영유아돌봄,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보조,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무인발권기(키오스크) 안내, D&D케어, 농업직무 등 총 12개 직무로 구성돼 참여자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황명규 관장은 "장애인복지일자리는 단순한 근로 제공을 넘어, 참

여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안전하고 보람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군수는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 안정적으로 일자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안전교육, 현장 모니터링 및 상담 지원을 병행하며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043-730-6712)로 문의하면 된다.

# 옥천지역자활센터, 건강검진비 지원

### 옥천성모병원과 협약

옥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강호신)는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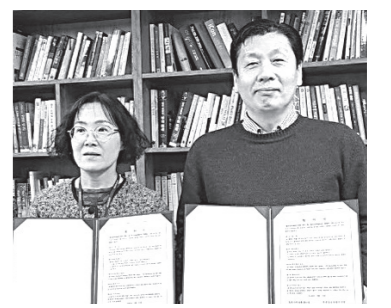
이를 위해 옥천군자활센터와 옥천성모병원은 19일 자활근로 참여주민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자활센터는 자활기금을 활용해 2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1인

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에게 종합건강검진과 건강상담 등 체계적인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검진 환경을 마련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옥천군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이 건강을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옥천지역자활센터와 옥천성모병원이 19일 자활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겠다"고 말했다.

옥천성모병원 관계자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격차 해소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충북사회서비스원, SNS 홍보 서포터즈 2기 모집

### 내달 9일까지 10명 선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이장회)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활동을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도민 또는 충청북도 소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총 10명을 선발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지원, 주요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행사지원, 홍보 콘텐츠 제

작 후 SNS 업로드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3월 3일까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와 개인 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recruit2@cb.pass.or.kr)로 제

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이장희 원장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가치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년들에게는 홍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홍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충북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www.043w.or.kr

#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SSN 교육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우울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치매는 장기간 돌봄을 요구하는 특성상 보호자의 소진과 근로 단절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부담도 적지 않다.

그간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중증치매 선정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제5차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대를 넘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보호자·종사자·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치매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 ①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밀평가를 위해 고비용의 병원용 종합심리검사(CERAD-K 등)에 의존해왔다.

이에 정부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 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2026년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을 상향 검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을 2026년부터 강화한다.

특히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적인 인지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치매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매뉴얼을 2028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나이가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문화로 치유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업을 지원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 ②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 기능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의료진이 심화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더불어 BPSD\*를 동반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나이가 치매의 원인과 중증도 차이를 고려해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중·중중 등)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할 예정이다.

\* BPSD(행동심리증상,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공격성, 망상, 배회 등 치매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정신 증상을 통칭

### ■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 ①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상향을 검토해 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자의 돌봄 인프라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26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한다. 더불어 요양시설 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부터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한다.

나이가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치매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보호자의 돌봄 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정서지원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는 등 2026년부터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돌봄 경험을 축적한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을 2026년 시범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 간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돌봄 경험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 지원도 강화한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부담이 큰 BPSD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직종별 전문교육 과정에 BPSD 교육을 확대한다.

더불어 2026년부터 선입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치매교육 시간을 늘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과 공공후견 지원 강화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 및 보호자 지원체계 구축

### ■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 ①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전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만큼, 현행 적성검사 절차를 보완한다.

또한 일상 속 치매 예방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 수칙 3·3·3'을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2027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이해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선호를 반영한 치매 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기업·도서관·학교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문화를 확산한다.

#### ②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보장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4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신탁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탁재산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정을 실무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생애 말기 존엄성 보장을 위해 치매환자를 위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포괄적 완화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 ■ 연구 지원 확대

#### ①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흐름에 맞춰 혁신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치매 조기진단과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법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 임상데이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 개발 치매 신기술의 의료 현장 실용화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돌봄 현장에서 첨단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복지용구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지훈련기기 등 치매 특화 급여 품목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②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해 연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치매 코호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치매 뇌조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치매 뇌은행을 4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늘려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치매센터 주관 '프로그램 질 관리체계'를 2026년 구축한다. 적합성과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서비스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나이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조사인 치매실태·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한다.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신규 조사 항목을 추가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 정책 기반 강화

#### 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의료·복지 지원 여건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개편안을 마련해 202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앙은 정책 기획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은 지역 기술 지원 등 현장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검토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② 촘촘한 치매 자원 연결망 형성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치매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인지저하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 등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효율적인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치매예방과 환자의 정서 함양,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자연 기반 야외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치유의 숲 등), 해양수산부(해양치유센터), 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 농장 등), 농촌진흥청(치유농장 등)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부터 검사, 돌봄 연계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 찾기



복지광장

통합돌봄법, 선언의 시대를 넘어 '이행'의 시험대로



김 경 섭 단양장애인복지관장

2024년 3월, 대한민국 복지의 한 획을 그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노쇠, 장애, 만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포용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패러다임 변화를 공약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권을 법제화하고 탈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그러나 제정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

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통합돌봄법은 여전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철학과 방향이 옳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시스템과 실행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 과제는 '실행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은 '재정'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은 단순히 기존 예산의 배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주거 인프라 확충, 개인별 활동 지원 강화, 의료와 돌봄을 잇는 네트워크 설계 등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원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로만 규정했을 뿐, 명확한 재정 책임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25년도 통합돌봄 예산은 필요 수준에 크게 못 미치게 편성됐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돌봄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지자체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선택적 시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필연적으로 '돌봄 공백'을 야기한다.

시설의 기능을 축소하는 속도에 비해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그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

장애인과 고령층이 피해를 입는다. 기관 운영이 흔들리면 전문 인력이 이탈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현장 피로도 급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심각한 과제다. 통합돌봄은 지자체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의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는 극명하다. 특히 공공의료와 취약한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례 관리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급증하고 활동 지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살던 곳에서의 삶'이라는 원칙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돌봄의 질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이미 통합돌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통합돌봄의 철학적 뿌리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으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나 전문가의 대리 결정이 관행화될 위험이 크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사자를 관리·통제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설'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적 돌봄의 공백은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돼 왔음을 고려하면, 이는 젠더 불평등을 고

착화할 우려가 있다.

통합돌봄은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중심 돌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합돌봄법이 진정한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최소 서비스 기준'에 따른 안정적 국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 인프라의 확충이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공급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 주체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옹호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통합돌봄법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실행 없는 방향 제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전 속 권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되는 돌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이행'이다.

2026년, 이 법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구원이 될지, 또 다른 실망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단에 달려 있다.

복지칼럼

AI 시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정 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팀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선망 대상이었던 회계사, 변호사 등 이른바 '사' 자 전문직 취업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70% 이상이 주요 회계법인에 채용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그 배경에는 반복적인 데이터 검토와 초안 작성을 수행하는 AI의 등장이 자리하고 있다. "공부 잘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이라는 표현처럼, 기술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복지 행정은 시스템이, 상담은 챗봇이, 돌봄은 로봇이 맡게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기술이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음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AI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복지가 빈곤 구제를 넘어 기술 혁명의 성과를 나누는 '공유 부 배당'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소득 보장만으로 인간다운 삶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복지가 '표준화' 모델이었다면, 미래의 복지는 개인의 삶을 세밀히 살피는 초개인화 통합돌봄으로 나아간다. AI가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의 고통과 삶의 서사를 읽어내는 일은 사람의 몫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에서 1:1 사례 관리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삶의 맥락에 맞춰 설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알고리즘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AI는 사회복지사의 적이 아니라, 복지의 시각지대를 함께 메워갈 조력자가 될 것이다. AI가 소모적인 서류 작업을 전담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모니터 앞을 떠나 클라이언트의 곁에서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될 것

이다.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복지도 가능해진다. 단전·단수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사례처럼, 기술은 사후 처리에 급급했던 업무를 '사전 예방 전문가'의 영역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또한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통해, 돌봄 로봇이 채울 수 없는 정서적 빈틈을 메우고 기술을 매개로 소외된 이들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다시 연결하는 '디지털 휴머니즘 전문가'의 역할도 부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AI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전문 역량, '인간다움'의 구체화다. 미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것'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전문성이다.

첫째, 맥락적 공감과 정서적 동행이다. AI는 "슬프시겠네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에 담긴 '생의 무게'를 체감하지는 못한다. 클라이언트의 삶에 정서적 주파수를 맞추고 "내 고통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을 주어 삶의 의지를 회복하도록 돕는 '관계의 힘'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권능이다.

둘째, 윤리적 상상력이다. 복지 현장엔 정답이 없는 윤리적 딜레마의 연속이다. AI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최선의 대안을 설계한다.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단 한 사람의 소외된 이웃을 포기하지 않는 '윤리적 집요함'이 우리를 기술과 구별 짓는다.

셋째, 사회적 조율 능력이다. AI는 자원의 목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구축하지는 못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마을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술은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인간 사회복지사의 독보적 영역이다.

결국 인간다움의 온기가 기술을 완성한다.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따뜻한 인간의 온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AI 시대의 사회복지사는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두는 휴머니즘 전문가여야 한다.

기술이 '연결'을 제공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충청북도 사회복지 현장이 이 거대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애의 온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사의 시계는 왜 늘 '지금'에만 멈춰 있을까



전 성 호 소나무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회복지사에게 새해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새 다이어리를 펼치기도 전에 책상 위에는 지난해의 서류철이 겹겹이 쌓여 있다. 연말정산, 사업평가, 개별서비스 총평, 후원금 정산, 각종 일지와 기록들이 새해의 문턱을 가로막고, 복지의 바탕인 인간 존중과 관계의 온기는 자연스레 뒤로 밀린다.

현장은 늘 '지금'이 급하다. 오늘의

위기, 오늘의 민원, 오늘의 마감. 사회복지사는 오늘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오늘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반복'만으로는 복지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복지는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느새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놓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는 이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사회복지사는 불안해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날을 떠올린다. 그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 뒤에는 상담기록, 사례평가, 계획 작성, 프로그램 조정 같은 행정 업무가 앞다투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쏟은 시간이 기록으로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은 현장의 무게를 담담히 보여준다.

기록은 필요하다.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은 기본이다. 문제는 기록이 사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잠식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다. 복지의 위기는 기록이 사람을 가리는 순간 시작된다. 관계보다 문서가 앞

서고, 개입보다 증빙이 우선되는 순간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처럼 보인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구조적 현실이다.

복지의 시간은 현장에서만 흐르지 않는다. 기관장은 행정 요구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행정과 정책 담당자는 제도가 현장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책상 위의 작은 기준 하나가 현장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복지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지만, 제도는 종종 그 본질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목표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복지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를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데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일은 거창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10년 뒤 복지는 어떤 모습이여야 하는지, 지금의 방식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사람 중심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지, 우리가 작성하는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짚어보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 질문들은 복지의 시간을 '지금'에서 '미래'로 옮기는 작은 나침반이다. 기록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기록의 목적을 되짚는 것이다.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복지가 사람을 중심에 둘 것인지, 서류를 중심에 둘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온다. 아이의 작은 변화, 주민의 따뜻한 인사, 어르신들의 미소, 그 '지금'이 소중하기에 사회복지사의 시계는 오늘에 머문다. 바로 그 마음이 복지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새해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복지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사람을 잊지 않으려는 사회복지사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 법률 홈닥터

##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 상담 분야

- 채권·채무, 손해배상
-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 이혼·친권·양육권
- 생활법률 전반 등

##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 법률 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마다 모시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

기여분

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또는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을 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법원은 기여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 사례의 경우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당당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봉우회, 27년째 무료급식 봉사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천, 이하 봉우회)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년째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봉우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 소외된 이웃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원들은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 환경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식사 제공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부

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정서적 돌봄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특히, 봉우회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1998년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 온 협의회 대표 장수 봉사단으로, 꾸준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 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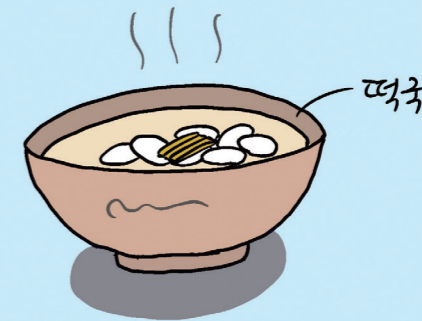
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나이

이창신 www.bokmani.com

한살 더 먹었습니다.



먹는 약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형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12월 31일(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형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한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지금 순체험·교육 지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지금 순체험·교육 지원 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숙박형 순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과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043-285-0102)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3-716-2168~9)

[다음세대재단, 돌봄&건강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설립 후 7년 이하의 비영리 조직
\*공고일(2026. 2. 6.) 기준 7년 이하의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팀당 최대 3000만원, 멘토링 및 교육, 네트워킹, 임팩트 역량 평가 및 백오피스 지원
■ 신청기간: ~2026. 3. 3.(화) 14시까지
■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www.daumfoundation.org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 추천분야: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3개 부문)
■ 추천대상: 인적·물적·생명나눔분야에 걸쳐 나눔 활성화에 헌신해 온 개인 및 단체(기업)
■ 포상규모: 138명(예정) \*훈장(1), 포장(4),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15), 장관표창(90), 민간단체장 표창(21)
■ 포상시기: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11월 예정)에서 전달 예정
■ 추천기한: ~2026. 3. 4.(수) 18:00까지
■ 추천방법: 구비서류 우편, 이메일 모두 제출

[국립칠곡미술관, 2026년 1차 '나눔의 숲 캠프' 수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
■ 지원내용: 국립칠곡미술관 식사 및 프로그램(당일형, 1박2일형) 지원
■ 모집기간: ~2026. 3. 6.(금)
■ 운영기간: 2026. 2. 11.(수)~3. 31.(화)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www.sooperang.go.kr

[티머니복지재단, 2026 교통복지 공모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해피로고로 가입된 사회복지 관련 기관 12개소 내외
■ 지원주제: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동편의 증진사업,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지 증진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지원내용: ①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내

사업 추진 가능 단체 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택1

- 신청기간: ~2026. 3. 8.(일)
■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참고: tmoneywelfarefoundation.or.kr

[푸르메재단, 2026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8년 1월 1일 생 ~)의 장애아동·청소년(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1인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2026. 3. 16.(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페이지(gwon.net/mobis1) 작성 및 제출
■ 지원기간: 2026년 4월 ~ 2026년 11월(8개월)
■ 참고: pume.org

[KBS강태원복지재단, 2026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G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양육비
■ 신청기간: 월 1회(1일~15일)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참고: www.kbsktw.com

[우양재단, 2026년 새출발 소원상자 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 신청기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주민여성쉼터)
■ 사업대상: 신청기관의 퇴소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월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된 가정, 퇴소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초기 생활·정서·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 지원내용: 1가정당 먹거리, 생필품, 자기계발 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지원물품: 먹거리(최소 20만원~30만원), 생활용품(최대 20만원 이하), 자기계발(최대 10만원 이하)
■ 신청방법: 구급품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34-084

▶ 공동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63-1817

▶ 초등 고학년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관리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644-2980

▶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88-1428

▶ 초등아동 학습·놀이 지원
관리센터: 청주시남이대합계돌봄센터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91-4000

▶ 풋살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285-0102

▶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립노인요양원
활동기간: 3.1~3.31
전화번호: 043-851-321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2026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예산처 복지위원회의 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 0000-2034-5678-0000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